

2 0 1 3
F A L L
V o l . 3 6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사의 따뜻한 이야기

원익사



自由
+
疏通
+
幸福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인의 따뜻한 이야기

COVERSTORY



04 **Cover story**
기업문화 핵심가치
소통

06 **Wonik News**
원익가족소식
원익인 뉴스

16 **CEO Column**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

20 **Special Edition**
2013 i-SEDEX
국제반도체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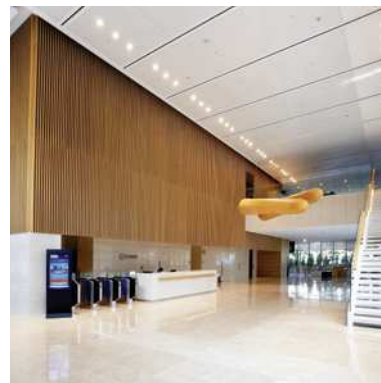
CONTENTS

COVER STORY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 04 Cover story**
기업문화 핵심가치 - 소통
- 08 Wonik News**
원익가족소식
- 16 CEO Column**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대표이사
- 20 Special Edition**
2013 i-SEDEX 국제반도체대전

- 26 Special Edition**
원익 32주년 창립기념일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
- 30 Special Edition**
원익
판교 원익빌딩 소개
- 34 Wonik Business**
(주)원익IPS 엄용택 부장
터치스크린 신규사업 진출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눈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 38 Wonik Business**
(주)원익큐브 IT사업부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 국내 유통 주도
- 42 Wonik Dream Team**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
윤지현 팀장과 팀원들
- 46 Never Ending Challenge**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Fairmont Hotel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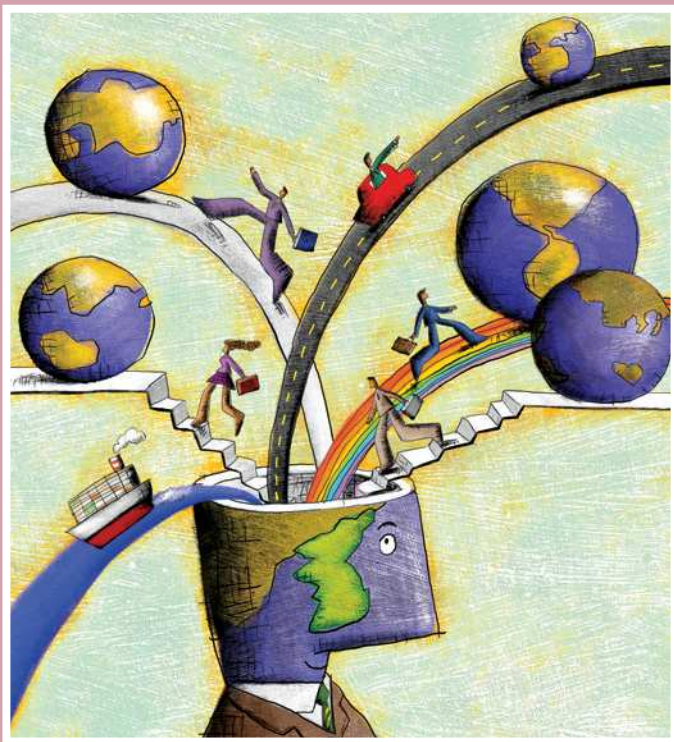
- 50 Zoom in**
(주)원익큐엔씨
마라톤 동호회 '마사모'
- 5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사랑의 점심식사 봉사활동

L I F E S T O R Y



- 60 Musical**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 62 Exhibition**
마리오테스티노展 : 은밀한 시선
- 64 Health**
대장암
- 66 Economy**
스마트폰과 경제

소통을 통한 사내문화로 글로벌 기업을 이룬다



국내 DRM 1위 기업 파수닷컴(대표 조규곤)은 세계 최초로 DRM 기술을 상용화하고,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물론 제조, 금융, 인터넷포탈 등 다양한 업종의 1,000여개 기업 고객에게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1위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업이다. 국내 DRM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사를 설립한 파수닷컴은 이러한 성과의 비결로 임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꼽는다.

‘나의 창의’가 아닌 ‘우리의 창의’가 될 수 있도록

파수닷컴의 이력서에는 특이하게도 짧은 청춘을 바쳐 쌓은 스펙란이 없다. 이름, 연락처, 학력 같은 기본 정보와 자유롭게 기술하는

인재상정도만 쓰면 되는 ‘열린 채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형적인 인재채용 방식을 벗어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파수닷컴의 인사방식은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2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파수닷컴은 “원활한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협력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배움의 자세를 갖추는 사람, 그 배움이 끝이 아니라, 본인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사람, 그리고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직의 창의(Collective Creativity)를 극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가 찾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파수닷컴에 입사한 한 직원은 대기업과 파수닷컴 사이에서 망설이다 면접 후 받은 한 권의 책을 보고 파수닷컴 입사를 결정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꿈꾸다>라는 책이었는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책 내용이 아니라 첫 장에 쓰여 있던 ‘사회의 첫 발을 함께 걸어가자’는 손 글씨 때문이었다. 이 직원의 결정에 용기를 준 손 글씨의 주인공이자 책을 건넨 이가 바로 조규곤 대표다.

조규곤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파수닷컴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회사가 지속가능을 통해 임직원 각자가 기업의 성장 속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 창의력을 통한 업무 수행, 끊임없이 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문화, 즐겁고 자유로운 일터를 통해 2020년까지 DRM 1위,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규곤 대표는 2020 비전이 실현되는 시작점이 인사채용이라 강조하고 있다.

독특한 사내문화 ‘파수 레인보우’

사람과 소통을 중시하는 파수닷컴은 인재채용 외에도 ‘파수 레인보우’라는 독특한 사내문화를 갖고 있다. 파수 레인보우는 소통이라는 대주제를 실천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파수닷컴만의 특별한 일곱 가지 혜택을 뜻한다.

- **Fasoo Monday talk**
월요일 아침마다 자유롭게 실시되는 학술 세미나.
- **Fasoo Refresh**
3년마다 주어지는 유급 휴가.
- **FIT**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복리후생 포인트 제도.
- **Fasoo Innovation System**
조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전쟁.
- **Fasoo Event**
Fun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 아래 임직원이 함께하는 행사.
- **Fasoo Round Table**
노사 모두를 이해하기 위한 자발적 커뮤니티.
- **Fasoo Club**
동료와 함께 즐기는 다양한 취미 활동.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직장인에게 월요일은 힘든 날이다. 주말에 흐트러진 리듬을 바로잡다 보면 피곤함 속에 오전이 똑딱 지나가기 일쑤다. 그런 월요일 날 아침, 파수닷컴은 2004년부터 ‘파수 먼데이 토크(Fasoo Monday Talk, 이하 FMT)’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다.

FMT는 임직원들의 지적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업무 역량을 개발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실시되는 학술 세미나다. 월요일, 그것도 아침부터 무슨 회의냐고 하겠지만, FMT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꽤나 밝은 모습이다. 2004년부터 진행을 맡아 온 이지수 상무는 그 이유로 직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강요하지 않으며, 커피나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고 말한다. 최신 IT 기술부터 경영 트렌드까지 각자 준비해 온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진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은 직원들이 자유로이 소통하는 가운데 세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춰나가게 한다.

또 분기마다 서로 다른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평가받는 ‘파수 이노베이션 시스템 데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직원간의 거리감도 해

소시켜준다. 그리고 수평적 논의 기구인 ‘파수 라운드 테이블’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노사간의 간격을 좁혀 동종업계의 부러움을 받기도 한다.

파수닷컴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음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회사 안팎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사 내에 지정좌석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모바일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외근이 잦은 특성상 고객사가 밀집한 지역에 오피스 공간인 ‘벙커원’을 두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을 배려하고 있다.

원익의 ‘소통’

원익 역시 사람중심의 기업문화를 위한 첫 시작이 소통임을 강조한다. 소통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통 경영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즐거운 일터로의 변화를 꿈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원익은 소통가치의 실현을 위해 각종 사내 프로그램과 이벤트, 동호회 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같은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진정한 소통경영의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 갈 원익의 모습이 기대된다.

글 윤보라 · 자료출처 파수닷컴 홈페이지



(주)원익**31기 임시 주주총회**

(주)원익은 2013년 9월24일(화) 오전 9시에 국제전자센터 11층 관리단 회의실에서 31기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통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변경하였다. 이어 연속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 사옥이전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주총회의 의장을 맡은 차동익 대표이사는 판교 사옥 이전을 통해 원익의 3대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을 밑바탕으로 힘찬 재도약의 의지를 다짐하였다.

(주)원익**(주)원익, 펜탁스 EPK-i7000 최첨단 전자내시경 출시****i10 내시경 스코프에도 첨단 기술 적용하여 치료 내시경 최적화**

펜탁스 EPK-i7000은 세계 최초로 125만 화소의 고화질을 구현한 펜탁스 내시경의 최상위 모델로 HD+ 이미지 기술을 적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더욱 높였다. 부가기능도 혁신적이다. 몸속 세포기관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 변환기술을 구현한 아이스캔(i-scan)이미지와 HD+ 내시경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트윈(twin)모드를 장착하여 병변 발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점막표면의 형태와 혈관패턴을 집중 조명할 수 있도록 내장형 HD+ 비디오 녹화 기능을 적용하였다. 내시경을 통해 확인했던 병변 상태를 똑 같은 선명도의 비디오 화면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의료진의 정확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EPK-i7000 첨단 내시경 프로세서에 적용할 수 있는 i10 내시경 스코프도 함께 출시했다. 내시경 스코프는 몸속 장기에 직접 삽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시경 장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i10 내시경 스코프는 2세대 메가픽셀 CCD 기술이 적용되어 선명도와 디테일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겹자채널은 3.2밀리미터로 기존보다 커져서 다양한 치료옵션 활용이 가능하고, 스코프직경은 9.8밀리미터로 소형화되어 치료 내시경에 최적화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가볍게 제작된 인체공학적 제어모체는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선명한 내시경 이미지와 디테일을 강화한 EPK-i7000은 최고 사양의 첨단 내시경으로서 의사들의 진단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25일 열린 제49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의사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원익은 EPK-i7000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립 부스를 마련하여 전문의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원익

창조인터넷강의 개시

2013년 10월1일 부터 (주)원익은 판교사옥 2층 공용 AV Room에서 조간 창조인터넷강의를 전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금번 강의 주요내용은 영업마케팅, 인문학,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개인 소양 및 외부 정보에 대한 기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임직원별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모두가 참여하여 활기차고 新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판교사옥이전으로 다소 들뜬 마음을 가다듬고 또한 매일 아침 Face to Face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원익큐엔씨

사랑의 헌혈Relay 시행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8월22일 아침 10시부터 구포동 구미 본사와 황상동 세라믹사업부 2곳에서 ‘사랑의 헌혈 Relay 행사’ 를 개최했다. 당사 봉사단체인 ‘나눔회’ 주관의 이번 행사에는 많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매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50여명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동참하였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헌혈증을 기증 하였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되어 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 하는 계기”라며 “작년에도 60여명이 헌혈에 참가 하는 등 앞으로도 매년 헌혈 및 이웃돕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후 헌혈증을 기부한 이들에게 적십자 기념품과는 별도로 상품을 지급함으로써 이후에도 직원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유도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에서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이웃사랑 실천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원익큐엔씨

중국 시안공장 중국인근로자 당사 현지교육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중국 시안공장 중국인 근로자 8명(이하 '교육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초정밀 세정교육을 실시하였다.

세정공정, 설비 및 전산 운영까지 반도체 초정밀 세정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국 시안공장의 안정화 Set-up을 조기완수 할 수 있도록 계획된 본 교육은 해당 공정에 소속된 당사 세정사업부 담당자와의 1:1 전담 멘토링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업무 숙지와 교육생 전원이 Multi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Program이 실시 운영되었다. 또한,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전문통역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주요 세정공정의 현 작업자와 공동작업에 더욱 친밀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다.

부족한 공정교육은 작업능력 평가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집중교육함으로써 9월 27일 8명의 모든 교육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수료될 수 있었으며, 교육과 더불어 휴일을 이용한 야외 힐링 나들이 활동을 통해 타지에서 의 노고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원익아이피에스

원익아이피에스 창립 22주년 기념식에 가다!

지난 10월11일 (주)원익아이피에스 창립 22주년 행사가 진위 본사 8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총 47명의 임직원이 5년 · 10년 · 1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15년 근속을 한 기술개발팀 최형섭 상무는 인사 당시를 떠올리며 “당시 97년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IMF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회사는 당시 직원 80~90명, 매출액 100억 정도의 정말 작은 벤처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원익 아이피에스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Create Only 1, Make 1210” 우리가 아침마다 외치는 이 구호처럼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로 보면 우리의 Vision2020 달성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시 글로벌 회사로 우뚝 서려는 원익 아이피에스에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껏 그래 왔듯이 원익 아이피에스의 전 임직원은 반드시 극복하고 글로벌 회사로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10년 근속상을 수상한 인사팀 박우정 부장은 소감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원익아이피에스에서 함께한 10년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추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2020년 “Create Only 1, Make 1210” 달성 할 수 있도록 현재 소속된 환경안전파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5년 근속상을 수상한 기술개발팀 김경훈 대리는 인사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 입사했을 때에만 해도 PE-CVD 국산 장비 업체로서 도약하는 시기여서 그만큼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았던 시기이지요. 지금은 그 노력의 결과로 PE-CVD장비는 물론 ALD, MOCVD, LCD Dry Etcher, Solar, Display 등등 다양한 반도체 장비를 개발 및 양산 할 수 있는 수준은 물론 세계 업체들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을 더욱 노력하여 원익아이피에스가 Global TOP10의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소감을 얘기했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는 원익아이피에스! 5년 뒤, 10년 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원익아이피에스의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원익아이피에스

i-sedex 개최

10월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최대의 반도체 종합전시회 'i-sedex'가 개최됐다. 이 전시회는 최대의 반도체 산업전시회를 자랑하듯 130여개사의 450여개의 부스가 참가 했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원익큐엔씨, 원익머트리얼즈 총 3개사와 합동부스를 만들어 참석을 하였다.

뛰어난 기술력의 상세한 설명과 친절한 응대로 인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 관람을 하였고 관련학과 의 학생들도 교수의 인솔하에 참관을 하였다.

㈜원익아이피에스는 MAHA-MP의 기술력으로 성공적 해외진출을 타사에 활발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특히 휴일인 한글날에 많이 참석한 관련전공 학생들에게는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이피에스의 사업분야 와 반도체산업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3일간 참석한 6만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우리 ㈜원익아이피에스가 세계 반도체산업에 뛰어난 기술력을 일조하고 있음 을 홍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머트리얼즈 오창공장 초고순도 암모니아 공장 증설

반도체, LCD, LED산업 등에 웨이퍼 증착공정에는 암모니아 기체가 사용되며, 이때 고품질 박막이나 나노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거의 제로 “0”에 가까운 초고순도 암모니아가 필수적이다. 시장의 확대 및 국내외 우수 경쟁사와의 제품가격 및 품질에 있어서의 무한 경쟁적인 구도하의 시장성장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함량이 액체기준 70ppb(parts per billion의 약칭. 10억분의 몇에 상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기호) 이하의 품질 확보와 선행적인 용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품질 및 용량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흡착방식을 탈피하여 증류방식을 채택, 기존의 암모니아 공정과 차별화 되고 안정적인 생산설비를 갖춘 새로운 방식의 암모니아 공장을 오창 공장내에 지난 9월30일 증설을 완료하였다.

LED산업의 중요한 소재인 초고순도 암모니아는 LED공정에서 TMGa와 결합, GaN 막질 증착시 사용되며, 웨이퍼 크기가 확대되면서 에피성장 공정에 초고순도 암모니아의 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증설된 오창 초고순도 암모니아 공장은 기존의 상온흡착에 의한 제습공정을 벗어나서 전공정을 기상과 액상의 직접 접촉에 의한 분리방법을 적용하여 증류컬럼에 의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고품질의 액상기준 수분 70ppb 이내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원익 생산기술팀은 자체기술로 기본설계, 건설,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더불어 흡착제의 유지관리 비용 연간 4억원 이상, 운전원 3명을 절감하며, 현장 업무의 자동화로 근무자들의 편의성도 증대된 설계방식이다.

또한 모든 공정은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만일의 사태인 비상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공장이 Shutdown 되도록 구현하여 특수가스회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 공장을 이룩하였다.

지난 봄 총 32억원의 투자 결정과 동시에 짧은 프로젝트 기간(6개월)과 도전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0월 “1”일에 “7”N급 제품을 연산 “15”00톤 규모로 플러그를 꼽아 종결하듯이 완수하자는 뜻을 세우고 이를 함축한 “Plug-in 1715”를 모토로 플래카드 제작 설치하여 공동 목표 의식을 고취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사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공정의 완벽을 위하여 생산기술팀을 비롯한 타 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를 통하여 Process Simulation, 설비들의 Spec 및 기준을 작성하고, 무사고 안전으로 무더운 여름의 건설기간을 극복하고, 추석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Plant set-up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연산 1,500톤의 초고순도 암모니아 양산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성공적인 결실의 과정 이면에는 생산, 품질, 환경안전, 구매 등 관련 팀별 협업이 바탕이 되어 자유, 소통, 행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 딛고 최종 Set-up과정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보다 향상된 프로세스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암모니아 공장을 통하여 회사 매출확대 전략에 과부족에 의한 기회손실을 막을 수 있고, 특히 해외 물량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형성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과 공급능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화채 나누기 행사 진행

무더위가 한창인 8월 8일 오후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직원과 함께 하는 화채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래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건강한 여름 나기’의 의미는 물론 ‘대표이사 및 임원과 임직원들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경중 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친 직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며 시원한 과일 화채로 임원들과 함께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혹서기 기간 동안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격려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종합개발(주)

신원종합개발(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개소식 개최

신원종합개발(주)(대표이사 박영일)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사무실을 이전,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에 신원종합개발(주)는 지난 8월28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희망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대유 부회장과 박영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외이사 등 임원진과 전 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 임직원 모두의 염원을 담아 사업의 성공과 신규 수주를 기원하며 성황리에 개소식을 마쳤다. 신원종합개발(주)은 연 매출규모 1조 원에 달하는 30년 역사의 건설 노하우와 탄탄한 신뢰도를 갖춘 건설회사로, ‘아침도시’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전국 곳곳에서 꾸준히 사랑받으며 ‘제1회 살기좋은 아파트대상’, ‘경기도 건축문화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신원종합개발(주)은 이번 사무실 이전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보다 성숙한 건설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주)위닉스

HONEYWELL CHINA SUPPLIER CONFERENCE

(주)위닉스는 지난 8월28일 HONEYWELL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개최한 “SUPPLIER CONFERENCE” 행사에 품질관리팀 정주영 부장과 해외영업팀 김진열 과장이 참석 하였다.

HONEYWELL은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65개 이상의 회사를 인수하여 Sensing & Control business 군 생산 제품을 50,000개 이상 생산하는 World wide 기업이다.

이날 행사는 HONEYWELL CHINA 주최로 개최한 첫 회의로 200여개 Supplier 중 Key supplier인 31개 업체의 61명만을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외국기업

으로는 독일의 ZMDI사, MEAS 중국지사, 태국의 HANA, 그리고 당사로 구성되어 HONEYWELL CHINA의 Key supplier임을 입증했다.

HONEYWELL CHINA의 현재 Material sourcing 비율은 from America 40%, from EMEA 20%, from Asia pacific 35%이며, 향 후 3년 내에 Asia지역의 Material sourcing 비율을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히며, 참석한 Key supplier에게 동반 성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원익큐브

후너스 사명 변경

(주)후너스는 지난 8월 무역 · 유통 전문회사라는 이미지를 CUBE로 형상화하여 Global Network 회사로서의 무한한 성장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명을 (주)원익큐브로 변경하였다.

새롭게 선보이는 사명은 고객과 더 새로운 모습과 친근함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와 신뢰, 공정, 투명을 바탕으로 당사의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주)원익큐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다짐하였다.



(주) 씨엠에스랩**후너스바이오 사명변경**

(주)후너스바이오가 씨엠에스랩 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CMS는 Cell Membrane Structure의 줄임 단어로 각질세포간의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의 방어막 성분과 유사한 지질막 성분물질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자체 특허등록 예정이며 중의적 의미로 Cell Membrane Science, Cosmetic Medical Science를 강조하여 병원전문 화장품 회사의 이미지 부각하였다.

또한, CMS라는 명칭과 함께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회사로서의 사업영역을 구축한다는 LAB (Laboratory) 이라는 용어를 함께 활용하여 CMS LAB이라는 상호가 탄생하였다.

(주) 씨엠에스랩**Cell Fusion C 러시아 컨퍼런스 개최**

(주)씨엠에스랩은 지난 2013년 9월28일, 2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Vedensky Hotel Conference hall과 10월 1일 모스크바 Intercontinental Hotel Grand Ballroom에서 총 3일 간 러시아 파트너인 Beauty Institute Fijie와 Cell Fusion C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컨퍼런스에는 약 150여명, 모스크바 컨퍼런스에는 약 300여명의 러시아 각 지역 Cell Fusion C 유통자와 피부미용 전문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너스바이오 본사의 브랜드 소개 및 제품교육, 김종서 성형외과 김종서원장과 슈퍼스타 피부과 김세중 원장의 HIFU장비 시술시연 및 Posttreatment 제품 추천, 현지 피부과 전문의들의 시술 후 Cell Fusion C 제품 사용에 대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마무리된 강연 후에도 제품에 대한 질문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으로 오랜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강연 내용에 매우 만족하며 성원 속에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다.

(주)씨엠에스랩 해외사업부는 Cell Fusion C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하는 컨퍼런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 나라 유통자와 피부미용전문의들의 제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전문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에서 Cell Fusion C의 독보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주) 씨엠에스랩

젊음과 열정이 넘쳐 흘렀던 2013 (주)씨엠에스랩 하계워크숍 현장으로 Go!! Go!!

2013년, 원익의 새로운 가족이 된 (주)씨엠에스랩은 2013년 8월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평창의 숲속의 아침 펜션에서 “환골탈태 Jumping!!”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날 일기예보에서는 전국적인 폭우를 예상하였지만 우리의 열기에 하늘이 놀랐는지 다행히 우려했던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선선한 바람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숙소에서부터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장평체육공원에서 단체줄넘기, 피구, 2인3각, 계주 등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고, 팀의 승리를 위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의기투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조의 구성이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연령, 직위, 부서를 초월하여 조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끼리끼리”(?) 문화를 탈피하였고, 함께 땀을 흘리며 팀의 열기가 달아오를 때마다 소통의 장이 점차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체육대회 후 숙소에 들어와서는 푸짐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성민 대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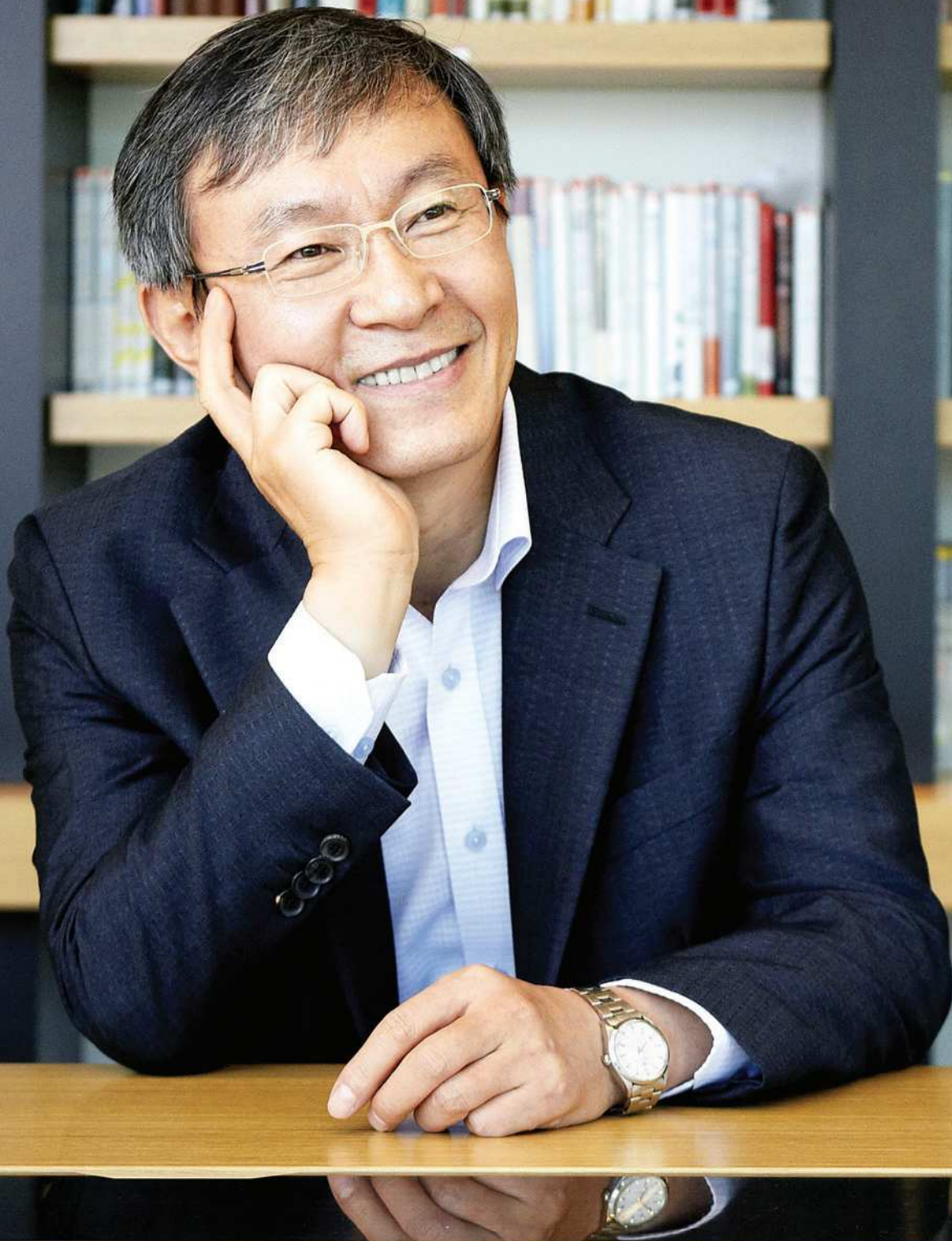
“지금껏 잘해왔지만 고인 물과 같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힘찬 파도와 같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회사, 직원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으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즉석장기자랑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며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직원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소리와 서로의 술잔이 맞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의 절묘한 하모니와 함께 강원도 평창의 밤은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의미처럼 원익의 새 식구가 된 (주)씨엠에스랩이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함께하면!! 멀리간다!!!





적극적, 긍정적 사고의 임직원들이 (주)원익큐엔씨의 가장 큰 경쟁력

2010년 10월부터 (주)원익큐엔씨를 이끌어온 박근원 사장은 지난 3년 간 (주)원익큐엔씨에 있었던 변화는 모두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실제로 변화의 중심에는 임직원들이 있었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박근원 사장이 취임한 이후 (주)원익큐엔씨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원익 퀴즈에서 (주)원익큐엔씨로 사명이 변경된 것을 비롯해 퀴즈 기술 도약, 세정 사업 진출, 세라믹 사업 확대 등 성장기반을 구축했고, Hidden Champ(한국거래소가 선정하는 주력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2위, 탄탄한 재무구조와 기술

(주)원익큐엔씨의

모든 임직원들은

작지만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한결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임직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부품소재 No.1’ 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더의 역할은 전 임직원이

하나의 공통 목표를 위한 진보를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력, 성장성을 갖춘 기업) 선정을 비롯해 삼성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선정되는 등 내실있고 견고한 성장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크게 향상됐다.

박근원 사장은 “삼성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주)원익큐엔씨가 탄탄히 쌓아온 기술력과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에 나오지만, 그동안 내실을 탄탄히 다져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특히 올해 (주)원익큐엔씨는 해외법인의 사업 안정화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미국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주)원익큐엔씨에도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 이에 미국 법인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기반을 마련, 대만과 독일 등 3개 해외법인 모두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직원들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 3년간 (주)원익큐엔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다. 박근원 사장은 “기업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머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또 그래서도 절대 안된다”며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이 자리에 온다고 해도 기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고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원익큐엔씨의 우수한 조직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피하지 않았다”며 “방향을 설정하고 이해하고 나면 실행력이 굉장히 우수한 조직이더라. 이 점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와 또 이렇게 잘 갖춰진 조직을 만들어오신 전임 분들께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 통 을 통 한
변 화 와 혁 신 은
미 래 를 향 한 동 력

또 박근원 사장은 “해외시장의 변화 흐름을 파악, 위기 의식을 갖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수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절대 1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원익큐엔씨가 세정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관련 아이템은 기복이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 박근원 사장은 지금도 기존 사업의 건전성을 지키고 지속 성장 가능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주)원익큐엔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반도체경기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경영목표(매출액 850억, 영업이익 156억 원)에 근사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주력사업인 퀴즈사업의 예상외 선전과 세라믹의 꾸준한 성장세 및 세정사업의 안정화에 기인한 것으로, 임직원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변화의 시작은 소통

(주)원익큐엔씨는 봉사활동 및 동호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정기적인 사내 체육대회는 물론 다양한 사내 활동에 대해 회사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봉사단인 원익나눔회를 비롯해 사내 동호회만 12개 정도가 운영되며 친목도모와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활기를 잃지 않는 조직이 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봉사단과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나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활력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희망적인 일이죠. 이러한 소통의 문화가 잘 정착되었기에 지금과 같은 변화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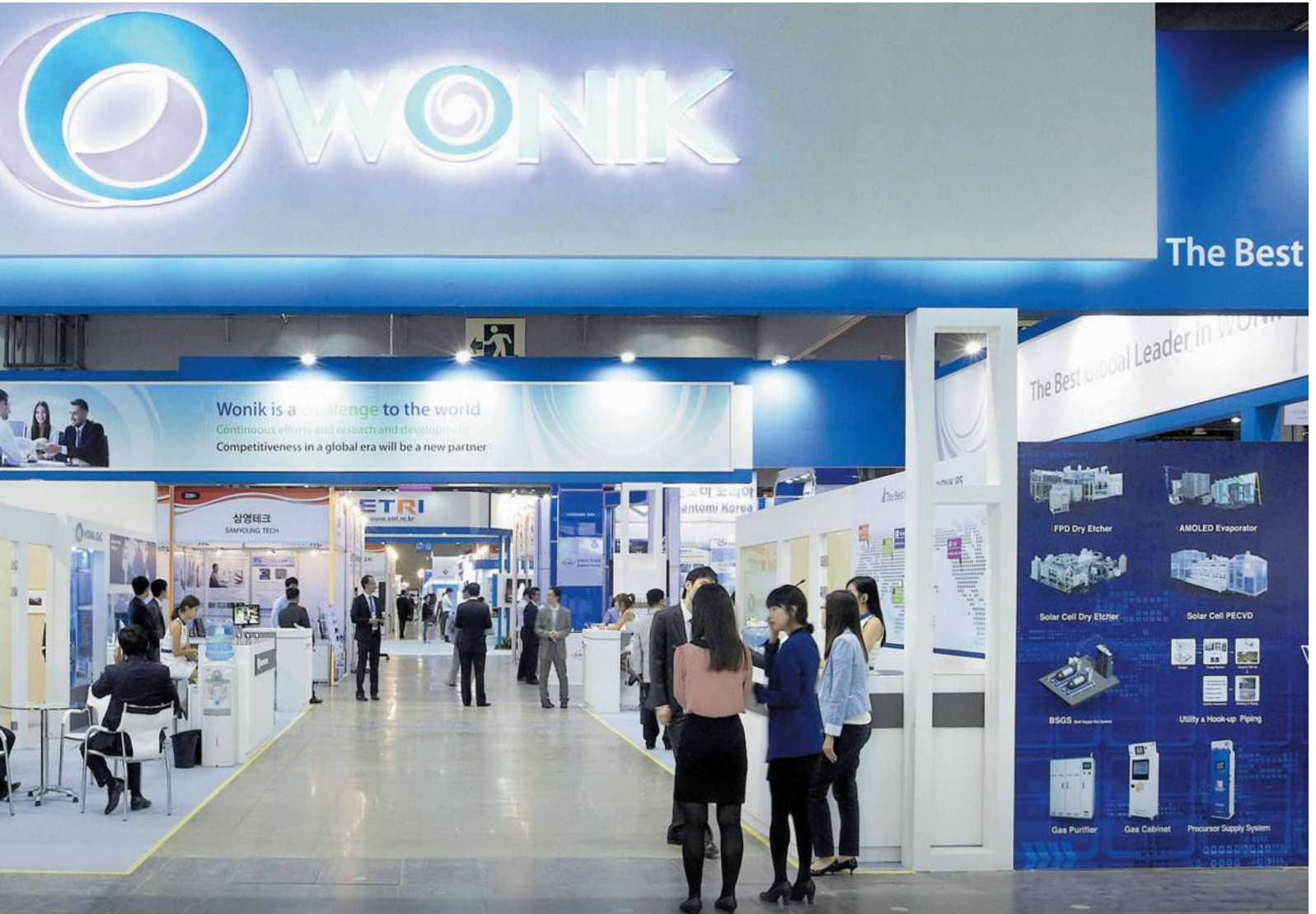
이렇게 건전한 사고와 열정, 활발한 소통의 문화를 잘 정착해 나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박근원 사장이 갖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순수하고 열정 넘치는 직원들을 보면, 리더로서 이들에게 뭘 해줘야 할까 항상 고민하게 된다고. 이에 (주)원익큐엔씨는 그간 작업장 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오고 있다. 박근원 사장은 “직원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터가 안전하고 즐거운 곳,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중 하나가 작업장 환경 개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새로운 원익의 핵심 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혁신, 또 복리후생은 물론 근무환경의 개선 노력의 결과로 (주)원익큐엔씨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미래를 주도해 나갈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원익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 ‘눈길’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 종합전시회 ‘국제반도체대전(i-SEDEX)’이 10월7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총 132개사 447개 부스가 참가했으며, 원익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 3개사가 참가해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 2008년 이후 국제반도체대전, 한국전자전,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 등 전자 IT 3대 전시회를 한 자리에 묶은 '2013 전자정보통신산업대전'은 전자 IT 강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인 전시회로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물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원익 3개사가 매년 참가하고 있는 국제반도체대전은 주력 반도체 관련 대기업 및 장비-재료 업체가 총출동,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원익은 뛰어난 기술력과 최고 성능의 장비를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시회 첫 날에는 이용환 회장을 비롯해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사장,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사장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또한 깔끔하게 잘 정돈된 원익의 부스는 3개사의 소개와 함께 각 계열사별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혁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이에 원익 부스에는 이른 시간부



터 국내외 관련 업체와 단체 관람 온 대학생들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MAHA-SP의 후속모델인 MAHA-MP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알린 (주)윈익아이피에스는 ALD, CVD, DISPLAY, SOLAR CELL, GAS SUPPLY SYSTEM 및 GAS PURIFIER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반도체 필수공정인 PE-CVD 분야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후 수년간 핵심기술들을 축적해온 (주)윈익아이피에스의 대표적 성공 모델인 'MAH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주)윈익아이피에스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NAND Flash 양산 공장 장비 발주

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최근까지 502억 및 268억(공시)의 MAHA, AKRA, Bluetain 설비에 대한 수주를 받았으며, 추가 수주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퀴즈웨이 제품과 반도체 및 TFT-LCD를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스 제품, LCD용 EUV Lamp를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주)윈익큐엔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주)윈익큐엔씨는 퀴즈 사업부의 반도체 Plasma Etching 공정 Ring 류, Cleaning(Wet station) 공정 Robot chuck, 세라믹스 사업부 Shaft, Sic Parts 제품 등 축적된 경험과 공정기술 노하우로 개발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및 TFT-LCD공정용 특수가스 전문제조 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고순도 NH₃(암모니아), NO(일산화질소), BF₃(삼불화붕소)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100여종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올해 반도체 및 OLED 성장에 대비해 NO, N₂O 등을 생산하는 세종시 전의 제2공장을 설립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그동안의 꾸준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제2공장 증설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도체, FPD, LED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순





도 특수가스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도표와 그림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2013 i-SEDEX(국제반도체대전)’에는 해외 바이어 3천여명을 포함해 총 6만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반도체 관련 업체의 전시 외에도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사업본부 허노현 전무는 “‘국제반도체대전’은 원익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신규 고객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 상담 및 계약 성사 외에도 기존 고객사와의 신뢰도 더욱 탄탄히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1 | 自由

26 **Special Edition**
원익 32주년 창립기념일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



30 **Special Edition**
원익
판교 원익빌딩 소개



34 **Wonik Business**
(주)원익PS 엄용택 부장
터치스크린 신규사업 진출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원익사, 가을하늘만큼 더 큰 내일을 꿈꾸다

자유 · 소통 · 행복이 가득한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은 원익이 전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행복한 '힐링 나들이'에 나섰다. 32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는 원익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담아낸 뜻 깊고 즐거운 자리였다.

지난 10월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테마파크 '에버랜드'에는 원익 전 계열사 임직원들과 가족이 함께했다. 총 2,600여 명의 인원이 함께한 이날 창립기념일 행사는 가을 햇살 만큼이나 눈부시고 따뜻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임직원들의 가족이 모두 함께한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는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하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힐링'의

시간이었다.

이날 오전 에버랜드 입구에는 원익 전 계열사 임직원들과 가족들로 붐볐다. 원익은 티켓 부스를 따로 운영, 임직원들에게 안내 책자와 자유이용권, 식사권 등을 배부하고, 티켓 부스존에는 페이스페인팅과 포토존을 함께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캐릭터 머리띠와 모자 등의 선물도 준비하





는 세심함을 보였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라 즐겁습니다. 업무가 바빠 야근이나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어 가족들에게 미안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가족들을 배려해주시 감사하죠”

티켓 부스존에서 만난 (주)원익IPS 생산기술센터 전용백 부장은 부인 장혜경 씨와 딸(6세), 아들(3세)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 무엇보다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용백 부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일도 잘 되고, 임직원들이 더욱 애정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거라 믿고 있다”며 “어린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에 올해 입사한 생산팀 심만섭 사원은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부와 ‘힐링 나들이’에 함께했다. 예비 신부 우연지 씨는 “오늘 연차를 쓰고 시간을 맞춰 함께 왔다. 내일은 우리의 8주년 기념일이고, 다음 주에는 부부가 된다”며 “오늘 예비 남편의 회사 행사에 함께와 보니 더욱 든든하게 느껴진다. 결혼 후에도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번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는 오전 10시부터 입장을 시작해 오후 4시30분까지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시간과 이후 공식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는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단체와 개인 입장객들로 붐볐고, 이에 원익은 임직원들의

편안한 나들이를 위해 사파리 Q-PASS를 마련, 대기 줄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은 물론 전용 라운지를 마련해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캐리커처 이용권을 제공,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주)원익큐엔씨 세정사업부 이성탁 사원은 6살 어린 아들과 단 둘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아내가 바빠서 오늘 아들과 둘이 왔다. 평소 아들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낸 적은 거의 없는데, 덕분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사실 어린 아들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고 아내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오붓하게 부인과 데이트를 즐긴 (주)원익 안봉희 고문은 “두 딸이 어릴 때는 자주 왔지만, 딸들을 시집 보내고 나니 이런 기회가 없었다. 오늘 아내와 오붓하게 가을 소풍을 온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양한 먹거리와 신나는 축하공연,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화려한 불꽃놀이!
원익으로 하나된 축제의 현장**

원익 가족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공식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포토존이 설치됐고,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원익가족 희망나무’가 설치돼 원익 임직원들의 희망 사항을 엿볼 수 있었다. ‘원익가족 희망나무’에는 원익 임직원들의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바란다”, “원익그룹의 번창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파이팅!”, “즐겁고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승진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런 행사에 오고 싶습니다”, “사장님 성과급 많이 주세요” 등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다, JK김동욱, 김종서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원익 임직원들은 생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만끽했다. 또 호텔식사권과 (주)씨엠에스랩의 화장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주)원익큐브 화학1사업부 김유일 부장은 “예전에는 창립 기념일에 더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너무 색다르고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위닉스 정다영 사원은 “이제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다. 입사 후 처음으로 참여한 원익의 공식 행사였는데, 정말 즐거웠다”며 “오늘의 이 기분을 유지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원익가족 힐링 나들이’의 마지막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장식했다.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처럼 원익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얼굴은 이날 힐링 나들이가 선사한 행복의 미소로 반짝반짝 빛났다. ‘자유, 행복,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임직원들 개인과 가족까지 배려한 이번 행사로, 앞으로 원익의 임직원들은 더욱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익의 미래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 윤보라 · 사진 방문수

공식 행사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해 (주)원익큐엔씨 박근원 사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진중 사장, (주)원익IPS 변정우 사장, (주)원익 차동의 사장, (주)원익큐브 오영신 사장,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용성 사장, (주)위닉스 장홍식 사장, (주)신원종합개발 박영일 사장, (주)씨엠에스랩 김승민 사장 등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한 회장은 “원익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자유, 행복, 소통’의 가장 근본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오늘 32주년 창립 행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날 원익은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MC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된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임직원 및 가족들의 신나는 댄스 경연대회와 함께 가수 바





원익,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

이곳에 자유·소통·행복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다

원익(회장 이용한)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원익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소재의 원익빌딩 준공에 따라 지난 9월초 본사를 이전했으며, 각 계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이전한 판교 사옥에는 (주)원익을 비롯해 (주)원익큐앤씨,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원익큐브 등 계열사들이 입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주)씨엠에스랩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로써 원익은 계열사 간의 보다 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원익빌딩은 지상 9층, 지하 3층의 규모로, 원익의 기업문



화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에 걸맞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공간들이 다수 확보됐다.

건물로 들어서면 탁 트인 로비와 함께 단연 눈에 띄는 공간이 계단으로 연결된 2층 비즈니스 라운지다. 이 곳은 고객사 등 외부 업체와의 미팅이나 회사별 미팅을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으로, 최고급 원두 커피와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2층에는 비즈니스 라운지와 함께 A/V룸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 곳은 각종 사내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영화 상영, 음악 감상 등 직원들이 함께 사내에서도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공간은 1층과 지하1층에도 마련됐다. 1층 E-Library에서는 다양한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 볼 수 있으며, 매월 40권의 신간 서적들이 구비될 예





정이다. 이 곳 역시 도서 대여 뿐 아니라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커피 머신이 마련돼 있다.

지하1층에는 카페테리아와 피트니스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테리아에서는 무료

조식을 포함,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와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췄다. 특히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업무시간에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고급 세면도구와 수건 등도 마련해 직원들의 건강과 함께 편안한 이용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3층부터 7층까지는 각 계열사별 업무 공간으로 구성됐다. 3층과 4층에는 (주)원익큐브와 (주)씨엠에스랩, 5층은 (주)원익큐엔씨, 6층은 (주)원익, (주)원익머트리얼즈가 입주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개개인의 책상마다 파티션을 설치하지 않고, 임원실의 경우도 따로 방을 만들지 않는 등 직원들 간의 소통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 공간의 특성은 직원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업무 효율의 극대화

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한 각 층마다 마련된 휴게실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 여기에 커피 머신과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을 갖췄다. OA룸과 문서보관실, 회의실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태양광을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블루톤의 전동루바는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했다.

8층에는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소회의실, 고문임원실, 9층에는 회장실, 비서실, 회의실, 기획조정실, 감사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건물 옥상에는 직원들의 보다 자유로운 휴식을 위한 정원, 지하 2~3층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한편 신뢰, 공정, 투명을 바탕으로 한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 가치가 돋보이는 이번 신사옥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에도



열린 생각과 도전 의식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익은 신사옥 입주와 함께 앞으로도 직원들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주)원익IPS 솔라사업팀 터치스크린, SPUTTER 장치 개발

Sputter 'LUNA-U600' 개발

(주)원익IPS 솔라사업팀이 신규 개발한 설비는 LUNA-U600로, 터치스크린 패널의 투명전극(ITO:Indium Tin Oxide / 투명하면서 전기 전도가 가능한 물질)을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해 증착하는 Sputter 장치다.

진공 플라즈마 장비는 크게 Dry etcher, CVD, Sputter로 나뉘는데, (주)원익IPS는 지금까지 Dry etcher, CVD는 양산 판매하고 있었지만 Sputter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 었다. 이에 이번 Sputter 'LUNA-U600' 개발로 진공 플라즈마 장비 회사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주)원익IPS 솔라사업팀이

최근 터치스크린 SPUTTER 장치를 개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단 기간에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

(주)원익IPS 솔라사업팀 엄용택 부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사업은 (주)원익IPS의 기술력과 그간 쌓아 온 신뢰가 더해져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원익IPS 솔라사업팀은 이번 Sputter 개발 단계부터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콘셉트를 잡아 진행했다. 터치패널 수급 업체인 네페스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Sputter 장비를 원하던 차에 (주)원익IPS와 그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게 된 것.

솔라사업팀은 지난해부터 기존 타사 장비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존 장비들의 시행 착오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조사해 장비 콘셉트에 반영했다. 고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particle 문제와 outgassing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장비를 제작했으며, 납품장소의 협소함을 반영해 일반적인 I type이 아닌 U type으로 제작,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투명전극은 증착 전에 Index matching layer에 증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산소가 투명전극 챔버로 넘어와 투명전극 막질을 저해하는 현상이 존재함에 따라 이번 Sputter 장비는 양 챔버 간의 게이트 밸



브를 장착해 산소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 현재 특허 출원 상태다.

(주)원익IPS 솔라사업팀 엄용택 부장은 “개발 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콘셉트를 어떻게 잘 잡느냐인데, 이번 Sputter 개발은 첫 단계부터 고객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실질적인 개발은 올해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타사 장비들을 벤치 마킹 하는 등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를 개발하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정도 내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첫 개발이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공정 테스트를 2~3일 밖에 못했다. 짧은 시간이었기에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다”며 “9월6일부터 양산, 초기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현재는 거의 다 해결된 상태이며, 이번 신규 장비 개발은 함께한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물이다”라고 팀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터치스크린 Sputter 장비 모델명을 ‘LUNA’ (달의 여신)으로 지은 이유는 최근 솔라(Solar) 사업이 일시 침체기를 맞은 상황에서 솔라 사업과 남매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다.

특히 Sputter는 터치 스크린, 태양전지, 건물 외벽 등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솔라사업팀은 터치 스크린 패널용 투명전극 시장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분야의 투명전극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엄용택 부장은 “이번 Sputter 장비 개발은 처음이었기에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 중반 반입을 목표로 영업활동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연내 수주해 Sputter 장비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2 | 疏通

38 Wonik Business
(주)원익큐브 IT사업부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 국내 유통 주도



42 Wonik Dream Team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
윤지현 팀장과 팀원들



46 Never Ending Challenge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Fairmont Hotel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전 기종 서비스 가능한, 국내 유일 총판 (주)원익큐브 IT사업부

제 아무리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이라도 고객 입장에서 기업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결코 좋은 제품이 될 수 없다.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이 점에 주목했다. 1년 365일, 24시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 국내 유통의 선두 자리를 곳곳이 지키고 있는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지금이 시간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인디고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이남 지역은 양산물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두 명의 직원을 파견해 관리하고 있다. 또 출판 인쇄물이 많은 파주 출판 단지에도 직원이 상주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품질은 지난해 HP 전세계 영업 및 서비스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인정받았다.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서비스 접수에서부터 고객 대응 전 과정을 담은 자체 동영상을 발표해 회사 홍보는 물론 체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지난 2004년 7월 데모센터를 오픈하면서 HP와 총판 계약, 2005년 2월 8대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45대에 이르는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의 국내 유통을 주도해 왔다.

현재 IT사업부는 영업 3인, 지원 2인, 서비스 20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의 수입 및 유통, 사후 관리까지 관련 종합 솔루션을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원익큐브 IT사업부가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 전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총판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 IT 사업부는 판매뿐 아니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로부터 최상의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2004년부터 IT사업부를 이끌어오고 있는 김종호 이사는 “그동안 IT 사업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비즈니스 초기 단계에는 서비스 엔지니어가 단 3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각 기종별 숙련된 엔지니어가 15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동영상에는 '강남스타일' 곡에 맞춰 직원들이 함께 춤추며 일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담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그 결과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신규 설치된 HP 인디고 장비의 초기 교육을 위해 엔지니어를 파견하게 됐다. 김중호 이사는 "HP 인디고 장비 신규 설치 시 고객 장비 운용 초기 교육(Ramp-up Training Program)을 진행한다.

보통 HP 아시아 본사의 서비스 엔지니어가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번 방글라데시 신규 설치 초기 교육은 HP 아시아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주)원익큐브 IT사업부 엔지니어 2명을 유상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 출국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HP 본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시장의 미래 가치성에 주목한다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는 각종 출판물과 라벨 인쇄, 치약 튜브, 웨딩 앨범 제작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최근에는 기업 내부에서 쓰이는 인쇄물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내 인쇄 시장은 10조원 정도의 규모이지만, 아직 디지털 인쇄 시장은 10%가 채 안되는 7~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디지털 인쇄기는 앞으로도 잠재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다.

올해는 HP 인디고 제품 라인 중 가장 고가(17억 상당)의 장비인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출시에 따라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한국 HP와 협업을 통해 서울, 대구 등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성공리에 진행했으며, 지난 6월 국내 1호기 계약 및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HP ‘인디고’ 디지털 인쇄기는 판매뿐 아니라 사후 서비스와 소모품 공급 등으로 꾸준하게 사후 매출이 일어난다. 김종호 이사는 “사후매출만 월 10억원 정도”라며 “HP에서 소모품을 받아 공급하고



사후 서비스를 관리하며 소모품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판매가 한 번 이루어지면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으로 김종호 이사는 “(주)원익큐브 IT사업부는 앞으로도 High-end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또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 대상 중 하나로 3D 프린터 시장의 미래 가치성에 주목, 향후 HP ‘인디고’를 대체할 사업 아이템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통의 기업문화, 우리는 하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각자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에 주력해야 하는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 서로 얼굴을 보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그동안은 '소통'과 거리가 먼 회사생활을 해왔다는 그들이 원익이 추구하는 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만나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후너스바이오가 원익에 인수 합병, 최근 사명을 (주)씨엠에스랩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바뀐 것은 사명 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회사 내 문화도 원익이 추구하는 가치 '자유, 소통, 행복'과 가까워졌다.

총 인원 10명으로 구성된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은 국내 3천500여 병,의원에 메디컬 전문 화장품 브랜드 셀퓨전씨(Cell Fusion C)를 홍보, 입점, 관리하고 있다. 10명의 팀원들은 각각 강남과 강북, 강서, 서대문 등 서울 지역은 물론, 일산, 청주, 강원, 수원 등의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구성원의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어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문화가 오래되진 않았다고.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 윤지현 팀장은 “오전에 출근해 교육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고 나면 오후 시간은 주로 외부에서 근무하고 현장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회식이나 그 외 활동을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또 예전에는 회식이나 동호회 활동 등 업무 외 사적으로 직원들이 만나는 자리가 어려운 문화였다. 올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는 사내 분위기 변화와 함께 우리 팀 역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서모임 '나비'
개인과 팀, 전체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

사실, 팀 개편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2팀의 구성원들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주1회 독서모임 '나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 방식대로
소통 문화를
만들어낸다



독서모임 '나비'를 제안한 박홍수 회장은 “독서모임은 꼭 책을 읽자는 모임이 아닌, 책을 읽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 독서 경영-시간 관리-지식 경영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개인과 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지현 팀장은 “개개인이 발전해야 팀이 발전하고, 또 팀이 발전해야 영업부 전체가 발전한다. 독서모임 '나비'를 시작한 계기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엔 윤지현 팀장의 깊은 배려와 바람이 있다. 현재의 영업2팀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 팀원들이 다른 팀을 가더라도 그곳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팀장의 마음이다. 윤지현 팀장은 “탄탄한 개인의 능력이 바탕이 된다면, 어떤 곳에서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메신저로 하나되는 영업2팀

업무 특성상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손지영 주임은 “모바일 메신저는 거래처의 디테일한 업무 보고는 물론, 공지사항이나 제품 발주, 입고, 품질 등 모든 사

항에 대해 팀원들이 공유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2팀 최동순 부팀장은 “각자 외부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끔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모바일 메신저는 이런 상황에서 팀원들끼리 해결점을 찾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원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춘천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장은이 주임은 “지리적 특성상 일주일에 한 번 밖에 팀원들을 마주치지 못하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항상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영업활동 중 필요한 부분들을 얻기도 하고, 매출이 나오면 서로 격려해주기도 한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우리 방식대로의 소통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스런 사내 연애,
이제는 당당히 '결혼'

(주)씨엠에스랩의 기업 문화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는 윤지현 팀장과 박홍수 계장의 '결혼' 만 봐도 알 수 있다. 오는 11월16일 백년 가약을 맺는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해왔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주)씨엠에스랩 공식 1호 부부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홍수 계장은 “그동안 사내 커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내 연애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었다”며 “사내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한 덕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기뻐했다. 윤지현 팀장 역시 “우리가 (주)씨엠에스랩의 공식 1호 부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은 전반적인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멘토링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활발한 소통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향후 더 큰 시장에 진출해 활약하는 (주)씨엠에스랩 영업2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비비파우더



스킨비비



멀티아쿠아젤



더마비비



더마비비스틱



CMS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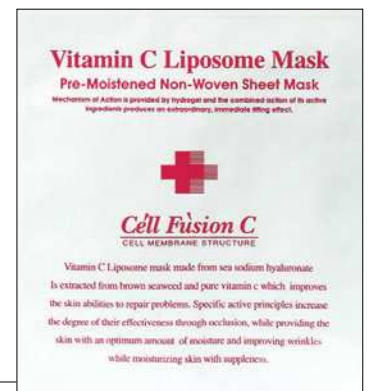
모이스춰유시젠



레이저리주베네이션



메디스파센블록



리포좀마스크

지구의 내일을 생각하는 ... 그린 파트너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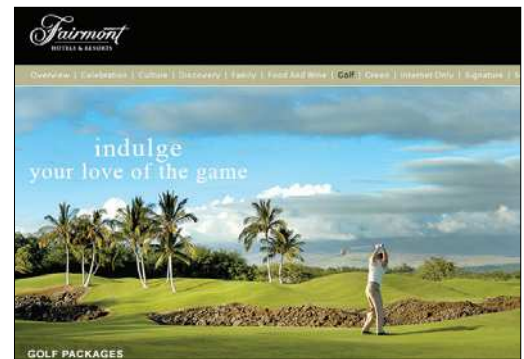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 현상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환경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런 대중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들에게 옮겨갔고, 기업 역시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소비자 마케팅에 활용하는 복합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물, 전기 등의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친환경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호텔과 친환경

관광 산업은 자원을 소비하는 산업이다.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그 자리엔 각종 휴양지와 편의시설들이 생겨난다. 또한 집을 나섬과 동시에 교통수단에 의해 탄소가 배출되고, 관광을 하면서 쓰레기가 배출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된다. 때문에 관광은 생태, 친환경과 같은 말들과 좀처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호텔은 관광 산업의 연장선으로 철저히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화려하고 고급스런 인공구조물이며,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온수 낭비,



매일 갈아치우는 침대 및 커버, 최적의 냉난방에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위한 조명, 전기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환경 친화적일 수 없는 호텔 업계에 기존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1990년 이래로 꾸준히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 19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문을 연 후 미국 주요 도시에서 럭셔리 호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북미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역에까지 진출한 글로벌 호텔 체인 페어몬트(Fairmont)다.

지구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호텔 운영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은 1990년 시작된 페어몬트의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지구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호텔 운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불어오던 생태환경주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시도였다. 기본적으로 소비산업의 대표적인 호텔 분야에서, 특히 럭셔리 브랜드를 지향하던 체인이 ‘친환경’을 말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페어몬트는 ‘그린 파트너십’을 꾸준히 실천했고,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호텔산업 환경경영의 선두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페어몬트는 토론토의 본사에 환경사업부를 두고 전세계 산하 호텔의 환경팀(Green Team)을 관리한다. 환경사업부는 계절마다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해 여러 지역 호텔의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시킨다. 대체에너지 사용, 자원 재활용, 에너지 소비 절감 등 각 부문에서 모인 아이디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리를 잡았고, 이로 인해 페어몬트는 2000년대 들어 각국의 환경담당 정부기관과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의 단체로부터 수차례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페어몬트가 ‘그린 파트너십’을 시작하며 함께 제작한 직원교육용 가이드북은 세계 곳곳의 호텔들이 어떻게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지 그 목표와 세부절차를 꼼꼼히 다룬다.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가이드북은 다른 호텔체인으로 퍼져나갔고, 숙박업 이외의 관광분야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에코’와 ‘그린’이 시대의 유행어가 된 덕분이었다.

에코(Eco), 그리고 그린(Green)

페어몬트 호텔 체인의 친환경 노력은 객실에서부터 이뤄진다. 객실의 시트를 갈기를 원하는지 알릴 수 있는 카드를 비치해 불필요한 세탁을 줄였다. 지금은 호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카드이지만, 이 아주 작은 생각 바꾸기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페어몬트다. 수건과 침대보 교체 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물 소비량이 적은 샤워기와 변기, 에너지 절약형 전구로 설비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투숙객들이 쓰고 남은 샴푸와 보디로션을 모아 노숙자 단체 등에 보내기도 한다. 또한 호텔은 에너지 스타 마크가 있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 한다. 그리고 호텔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근교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음식을 만들며, 남은 음식은 음식은행과 취약 계층 무료식당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인근 농장과 계약을 맺고 바이오디젤 퇴비를 만드는 회사에 보내고 있다.



페어몬트의 노력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사용 부분이다. 호텔별로 수천개의 전구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교체해 연간 수십만 KW의 전기사용량과 탄소발생량을 줄여온 것은 기본에 속한다. 1999년부터 풍력 및 유수발전 등 대안전기로 전체 전기 소비의 50%를 조달하고 있는 앨버타의샤토레이크-루이스 호텔, 2007년부터 전기 일부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는 페어몬트워싱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폐열 회수장치로 난방을 감당하고 있는 밴쿠버의 워터프론트 호텔 등 에너지 소비의 패턴을 바꾸자는 것이 최근 페어

몬트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다.

이 같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페어몬트 호텔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매년 에너지 절감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받는다. 그리고 전체 호텔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저감 노력, 개선결과 등을 유엔 기준에 맞춰 실시받는 '탄소 추적제'도 최근 실시하기 시작했다.

페어몬트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구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호텔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지를 재활용 종이 제품으로 구입한다거나, 소모품의 경우 되도록이면 각 호텔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운송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페어몬트 보스턴의 기념품 매장은 이러한 방침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다. 가게에는 산소배출량이 많아 온실효과 저감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대나무 소재의 스카프와 와인병으로 만든 컵, 오래된 레코드판을 이용해 제작한 그릇과 시계 등 환경단체 상점에서나 만날 수 있는 제품으로 가득하다. 그 가운데 압권은 폐신문지로 만든 핸드백과 지갑. 호텔 객실에서 나온 폐신문으로 만들어진 가방과 지갑은 재활용과 동시에 페어몬트 보스턴의 이미지를 높여주었다.

고객의 반응

페어몬트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고객들은 어떨까. 에코나 그린 같은 친환경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 즐기고 쉬기 위한 곳에서 재활용을 하고 아껴써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페어몬트의 친환경 콘셉트는 의무가 강제가 아닌 선택이기에 그런 걱정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고객은 환경을 배



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개념으로 인식해 반가워하기도 한다. 이런 고객들의 환경에 대한 높아진 의식수준으로 인해 친환경과 럭셔리 라는 이미지가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 취향의 최근 트렌드는 환경 개념이 마케팅 전략으로 확장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페어몬트 워싱턴이 올해 문을 연 친환경 스위트룸 '텍스스하이브리드'는 벽재와 천장 등 인테리어를 재활용 소재로 꾸미고 카펫이나 침구류도 대나무 섬유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등 '환경'을 핵심 콘셉트로 삼았다. 심지어는 벽에 걸린 그림조차 폐자동차나폐의류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을 정도. '에코 시크(Eco-Chic)'로 명명된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미국 고급 소비자층이 친환경을 세련된(chic) 것으로 인식하는 기호 변화를 반영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페어몬트의 성공과 원의

페어몬트의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비용 절감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높아진 환경 의식을 고려한 고급화다. 에너지를 절약과 대체에너지 활용을 통해 경비를 줄이고,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레스토랑과 재활용 프로그램은 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어몬트는 이 두 가지를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로 묶어내 자사의 브랜드를 차별화 시키는 데 성공했고 글로벌 호텔 체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원의 역시도 세계적인 친환경, 녹색 성장의 흐름에 맞추어 친환경 정책을 적극 실천한다면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을 열 어 가 는
원 익 사 의 따 뜻 한 이 야 기

SECTION 03 | 幸福

50 **Zoom in**
(주)원익큐엔씨
마라톤 동호회 '마사모'



5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사랑의 점심식사 봉사활동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청송 꿀맛사과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 참가 건강과 화합은 기본, 행복한 추억 만들어요

(주)원익큐엔씨 마라톤 동호회인 '마사모'(마라톤을 사랑하는 모임)가 지난 10월13일 경북 청송에서 열린 '2013 청송 꿀맛사과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무르익은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낸 이날, '마사모' 회원들 역시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온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올 가을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넓고 드넓은
가을하늘 위로
마사모는 달린다

지난 10월13일 오전 9시, 청송군민운동장에는 (주)원익큐엔씨 '마사모' 회원들을 비롯해 청송주왕산클럽, 대구북구육상연합회, KT 청송지사, 농협청송군지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1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산악 남녀 하프코스과 산악 남녀 10Km, 일반 남녀 5Km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2013 청송 꿀맛사과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는 청송군민운동장을 시작으로 파천면 중대산 및 방광산 일대 구간에서 펼쳐졌다.

이른 시간 구미에서 출발해 청송군민운동장에 도착한 (주)원익큐엔씨 마사모 회원들은 곧 시작될 마라톤 경기를 위해 함께 모여 몸을 푸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마사모 회원들을 비롯해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Zoom in

(주)원익큐엔씨

마라톤 동호회 '마사모'(마라톤을 사랑하는 모임)

동료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을하늘을 가른다

세 살난 딸과 여섯 살 딸, 중학교 1학년 아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온가족이 참가한 생산2팀 박성용 기좌는 “지난 대회에도 가족들과 함께 참가했다. 당시 두 살이었던 막내 딸은 유모차에 태워 5Km 코스를 돌았다”며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용 기좌의 부인 김수경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외출이 쉽지 않은데, 이런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생산1팀 이진권 기장 역시 11살 쌍둥이 두 딸과 9살 아들, 부인과 함께 참가했다. 이진권 기장의 아들 이제현 군은 평소 봉사동호회 활동에도 함께한다고. 부인 손정숙 씨는 “오늘 막내 아들이 친구들과 축구 관람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축구 관람을 포기하고 엄마, 아빠를 따라 이곳에 오겠다고 했다. 너무 기특하다”며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가족들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좋다”고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목표는 하나 더 나은 내일을 달린다

(주)원익큐엔씨 마사모는 9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마라톤 동호회다. 장용택 회장(생산부)과 이형길 총무(생산팀)를 주축으로 한 마사모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참여는 물론, 매달 정기적인 모임으로 건강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주 축구대회로 부상을 입은 생산팀 김종진 기사, 안규민 기사를 제외한 전 인원이 10Km 코스와 5Km 코스에 참가했다. 다리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한 김종진, 안규민 기사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 사과 박스와 먹을거리를 옮기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 5월 이후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한다는 장용택 회장은 “부상 이후 평소 헬스장을 다니며 건강 관리에 힘썼다. 전에는 10Km 코스를 52분대의 기록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40분대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마사모 활동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전산팀 김재홍 과장은 “경력이 얼마 안되니, 10Km 코스를 1시간 이내에 들어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마사모 회원 중 에이스는 가공팀 김형 기장이었다. 지난주 있었던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에서 마라톤 5인조 부문 구미시 2등을 차지한 김형 기장은 이번 대회에서도 입상을 목표로 굳은 의지를 다지며 분주

Zoom in

(주)원익큐엔씨

마라톤 동호회 '마사모'(마라톤을 사랑하는 모임)



히 몸을 풀었다.

드디어 오전 10시 대회가 시작되고 각 코스별 참가자들이 출발했다. 이번 '2013 청송 꿀맛사과 산악 마라톤 대회'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마사모는 예상대로 에이스 김형 기장이 10Km 코스에서 36분의 기록으로 4등을 차지하며 기량을 뽐냈고, 생산기술팀 홍성학 과장과 생산1팀 이규호 사원이 각각 11등과 12등(43분, 44분 기록)을 차지했다.

또 1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이 목표라고 했던 전산팀 김재홍 과장은 55분 기록으로 목표를 달성했고, 평소 40분대의 기록을 유지하지만 김재홍 과장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함께 달린 마사모 총무 이형길 기장 역시 55분 기록을 세웠다.

이형길 총무는 "이번 대회는 산악코스라 일반 마라톤 대회보다 힘들다. 특히 전국의 마라톤 매니아들이 다 모이는 자리다"라며 "비록 마사모의 김형 기장 외 다른 참가자는 입상하지 못했지만,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내일을 향해 함께 호흡하며 힘차게 또 한발

두 명의 여성 회원 참가자, 생산기술팀 김효주 사원과 세정사업부 양서운 사원 역시 “평소 다른 운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운동도 하고 사원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어 좋다”며 “5Km 코스는 특별히 힘들지 않다. 기록 보다는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참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 한 명의 낙오자나 부상자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친 마사모 회원들은 주최 측이 제공한 음식들과 청송 막걸리로 대회 후 피로함을 풀고,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용택 마사모 회장은 “예전에 비해 회원들의 기록이 조금 저조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기록 보다는 이러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원들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나. 앞으로도 마사모는 건강하고 행복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어르신들께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대접, 어려운 일 아니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노인 4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셈. 이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를 위한 시설 운영 등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봉사단체 및 개인의 일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이 어르신들의 따뜻한 점심식사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탤다.

한마음 봉사단의
구슬땀으로
행복을 나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9월26일 오전 9시,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에 위치한 북부 복지타운을 찾아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월 마지막 주 이곳을 찾는 한마음봉사단은 식당 청소는 물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요리 과정과 배식, 설거지, 뒷정리까지 점심식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아쉽게도 이날은 사내 중요한 업무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부족한 인원이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봉사단원들은 열심히 움직이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주)원익아이피에스한마음봉사단은 사우회에서 운영, 사우회회장 직을 맡고 있는 환경안전 파트 박우정 부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박우정 사우회장은 “2013년 3월부터 매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평택 북부복지타운은 노인대학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도착하자마자 식당 청소와 테이블 정리를 마친 한마음봉사단은 곧바로 주방에서 일손을 보탤다. 이날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메뉴는 설령탕과 해물과전, 오이-고추(야채스틱), 배추김치. 메뉴 구성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요리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다. 한마음봉사단은 인원을 나눠 오이와 대파 씻기, 과전 반죽 만들기, 각종 해산물 손질, 쪽파 다듬기부터 각종 야채와 김치 썰기, 설령탕에 들어갈 국수 말기, 해물과전 담아내기 등 식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비닐장갑을 낀 채 김치 썰기에 한창이던 법무특허팀 전영일 상무는 주방 일이 어색하지 않

Scene of Welfare Service

㈜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평택 북부복지타운 사랑의 점심식사 봉사활동

몸은 힘들어도
봉사를 통한
마음은 가볍다



나는 질문에 “평소 집에서 아내가 요리를 하면 설거지나 음식쓰레기를 버려주는 일은 내가 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집안일이나 봉사활동 둘 다 서로 돕고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이 싹트고 화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원들의 수는 적다. 봉사를 의무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을 제도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GS 제조기술팀 강문모 팀장 역시 “업무가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아쉽다. 정책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몸은 힘들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훨씬 많다. 꼭 한 번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12시가 되자 식당 밖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바로 옆 강당에서 진행된 노인대학 강의가 끝난 시간이라 한꺼번에 많은 어르신들이 몰린 것. 재무팀 김애리 사원과 부품개발팀 전경희 사원은 배식을 맡고, 나머지 인원은 행여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줄을 서 기다리실까 직접 테이블로 식사를 가져다 드리거나 설거지를 맡는 등 약 300여 분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한마음봉사단의 배식 봉사에 어르신들은 “손녀딸 같은 예쁜 아가씨와 젊은이들이 점심식사를 주니 오늘

보다 많은곳에
더욱 따스한
사랑을 나눌 계획



은 더 맛있게 먹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팀의 막내이자 대표 자격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김 애리-전경희 사원은 “막상 해보니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즐겁고 뿌듯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게 분주했던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함께 모여 앉아 먹는 점심 식사는 그야말로 ‘꿀맛’. 개발2 팀 김환동 대리는 “직접 다듬은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며 “우연찮은 기회에 오게 됐는데,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남자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많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직원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우정 사우회장은 “아직까지 봉사활동을 낯설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적은 인원으로 하려니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앞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어려운 곳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은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설 예정으로, 올 연말에는 연탄, 김장나누기 등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공연이야기



올해 2월 정식 라이선스로는 국내에서 처음 공연되며 '꿈과 희망'의 메시지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가 성공적인 초연에 이어 앵콜 공연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힐링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희망과 행복의 아이콘 주인공 '요셉' 역에 양요섭(비스트), 정동하, 박영수, 김승대가 캐스팅된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는 새로운 매력으로 10월31일부터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이미 해외에서는 2만회 이상 공연되며 널리 사랑받고 있는 이 작품은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편하게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힐링 뮤지컬로, 2014년 1월26일까지 약 3개월 간 공연된다.

송스루(Song-Through) 형식과 300벌이 넘는 의상, 다채로운 볼거리 '눈길'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는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로이드웨버와 '라이언 킹', '아이다' 등을 작사한 팀 라이스의 최초 공동 작업 작품으로, 성경 속의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했다.



특히 앤드류로이드웨버의 전매특허인 ‘송스루(Song-Through)’ 형식의 대사 없이 노래로만 구성된 이 작품은 발라드, 로큰롤, 칼립소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300벌이 넘는 다채로운 색상의 의상은 물론 현대적인 유머와 위트로 볼거리를 선사한다.

양요섭(비스트)-정동하-박영수-김승대 등 ‘요셉 4인방’의 완벽한 변신

꿈과 희망의 아이콘 ‘요셉’ 역은 섬세한 내면 연기는 물론 ‘송스루(Song-Through)’ 작품의 특성상 뛰어난 가창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배역이다. 초연 당시 임시완(제국의아이들), 송창의, 정동하, 조성모가 초대 ‘요셉’으로 열연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의 이번 앵클 공연에는 양요섭(비스트), 정동하, 박영수, 김승대가 ‘요셉 4인방’으로 캐스팅 됐다.

먼저, 2년 만의 뮤지컬 무대에 복귀하는 양요섭은 오디션 과정에서 가창력은 물론 이미지가 싱크로율 100%라는 극찬을 받으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캐스팅 되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또 초연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르는 정동하는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연기를 선보일 예정. 여기에 호소력 짙은 연기의 박영수, 섬세하고도 강한 인상의 연기로 뮤지컬 매니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배우 김승대가 합류해 각기 다른 매력의 ‘요셉’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 명의 ‘해설자’, 그리고 감초역할의 ‘파라오’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에는 주인공 ‘요셉’과 함께 극 전체를 이끌어가는 ‘해설자’와 제2의 주인공이라 불리며 극의 감초 역할을 하는 ‘파라오’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해설자’ 역에는 ‘오페라의 유령’, ‘뎀브라만차’ 등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며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해경, 초연 무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리사, ‘시카고’, ‘브루클린’ 등에서 호평을 받았던 김경선이 최종 캐스팅 됐다.

코믹하고 익살스러운 ‘파라오’ 역은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사랑받는 개그맨 박준형, 초연 당시 ‘새로운 파라오의 탄생!’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김장섭, 오디션 장을 초토화 시키며 ‘파라오다운 파라오다!’라는 심사평을 받은 김형묵이 연기한다.

TIP 공연정보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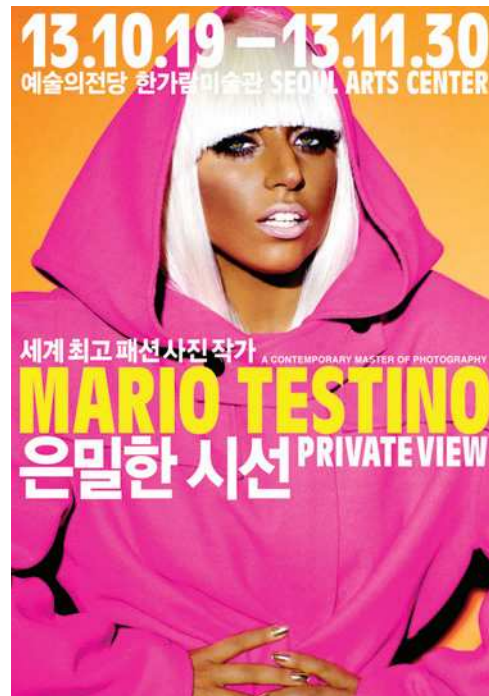
공연기간 : 2013년 10월31일 ~ 2014년 1월26일
장 소 : 서울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
공연시간 : 평일 - 오후 8시 (월요일 공연 없음)
토요일 - 오후 3시, 7시
일요일 - 공휴일 오후 2시, 6시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R석 90,000원,
S석 70,000원,
A 50,000원.
제 작 사 : ㈜라이브엔컴퍼니, RUG
공연문의 : 070-4488-8522





전시이야기

패션 사진의 거장 마리오테스티노, 국내 첫 전시



최고의 패션 사진작가로 손꼽히는 거장 마리오테스티노의 사진전, '마리오테스티노展 : 은밀한 시선(Mario Testino : Private View)'이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마리오테스티노의 독특한 시선이 담긴 작품 세계를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진 작품 86점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패션 포토그래퍼 마리오테스티노(Mario Testino)

오늘날 패션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인물로 손꼽히는 페루 출신의 사진작가 마리오테스티노는 런던과 뉴욕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누비며 30년째 활동해온 패션계와 미술계의 저명인사다. 보그(Vogue)와 베니티페어(Vanity Fair)등 최고의 패션지는 물론 현재까지 15년 이상 버버리의 광고 캠페인을 맡아 왔으며,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패션 업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진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상업 작가로는 드물게 1990년대 중반부터 런던, 파리, 뉴욕, 마드리드, 밀라노, 도쿄, 상하이, LA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유명 미술관에서 사진전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번 '마리오테스티노展 : 은밀한 시선(Mario Testino : Private View)'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



로 자리잡은 서울에서 더욱 다양한 관객층을 만나보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에 따라 기획됐다. 그는 “열정이 가득한 한국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관객들이 저의 작품세계에 빠져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한 톱스타, 패션계 유명 인사, 영국의 왕실 가족

이번 전시 작품들은 세계적인 톱스타와 패션계의 유명 인사, 전문 패션 모델, 영국의 왕실 가족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선보인다. 특히 ‘은밀한 시선’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세련미와 기품이 넘치는 왕실 인물들의 초상에서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장면, 톱스타들의 지극히 사적인 순간 등 마리오테스티노의 독특한 시선이 담겼다. 남다른 시선으로 피사체를 포착해낸 작가는 그가 찾아낸 사진 속 인물의 또 다른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달, 우리에게 친숙한 톱스타와 패션 모델, 왕실 인물들의 파격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로열 베이비를 출산한 케이트미들턴과 윌리엄 왕자의 약혼 사진은 물론 해리 왕자의 독사진, 프랑스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몇 달 전 환하게 웃고 있는 다이애나 비의 유명한 화보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왕세자비의 외출 모습, 찰스 왕세자와 두

왕자의 다정한 한 때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왕실 일가의 사진들도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마돈나, 브래드 피트, 기네스 펠트로 등 톱스타들의 평소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과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스텔라매카트니, 미국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의 사적인 사진 등이 전시된다.

TIP 전시정보

마리오테스티노展, 은밀한 시선

전시기간 : 2013년 10월19일 ~ 11월30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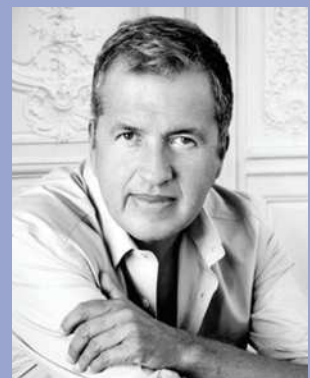
관람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
(입장마감 : 오후 7시)

주 최 : 조선일보사

주 관 : 지은 아트앤디자인, CJ E&M

문 의 : 지은아트앤디자인 (02) 790-3763

공식 홈페이지 : www.mariotestino.com





건강이야기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발병이 높아 일명 '선진국병' 이라고도 불렀던 '대장암'. 하지만 최근 갑상선암과 위암에 이어 한국인에게 가장 급증하는 암이 대장암이다. '암 발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특히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대장암 예방을 위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자.

무섭게 증가하는 '대장암' 바쁜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 점검부터



대장내시경검사로 조기진단, 완치율 높아

대장암은 90% 이상 용종 단계를 거쳐 암이 되는데, 암이 되기 전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면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조기 발견시 100% 가까이 완치된다. 또한 용종도 암으로 변하지 않는 비중양성용종과 중양성용종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자가진단으로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복통이나 혈변 등 증상이 나타난 후 병원을 찾으면 이미 대장암 2기를 넘어선 상태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50대가 되면 대장내시경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만, 최근에는 30대에서도 대장암 용종발견율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변비나 식습관, 가족력 등을 고려해 검사를 받는 등 주의해야 한다.

잘못된 식습관 - 변비 - 음주와 흡연



바쁜 현대인들에게 흔히 생기는 '변비'는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인의 식탁도 육류 위주의 서구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육류의 섭취가 증가하고 감자튀김, 도넛, 라면, 패스트푸드 등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발암물질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대장 점막을 자극해 발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섬유소 섭취 부족과 운동부족, 바쁜 일과로 인한 배변욕구 억제 등도 변비의 원인인데,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 과도한 음주는 대장 점막에 자극과 손상을 입혀 대장암 발생을 높이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과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장암의 증상

대장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거나 소화불량 등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은 잦은 설사나 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느낌, 혈변, 가늘어진 변, 심한 악취를 동반하거나 점액질이 증가해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 등이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배에 혹이 만져지거나 가스가 차고 통증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빈혈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습관



대장암은 무엇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대로 육류나 고지방식이 대장암의 발병을 높이는 반면, 채소에 함유된 섬유소는 대장암을 예방한다. 섬유소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변비를 예방, 대장 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준다. 또한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에는 항암 성분들이 다량 함유돼 있어 대장암 예방에 좋다. 하지만, 채소만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채소를 많이 섭취하되 닭가슴살, 생선 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다.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꾸준한 운동 역시 대장암 발병률을 낮춘다.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상승하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며 배변이 원활해진다. 자연스럽게 물의 섭취도 증가하기 때문에 장내 물질을 부드럽게 하고 발암물질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한다.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주 5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내 손안, 스마트폰 속 경제이야기



스마트폰
대기화면 앱으로
포인트 적립

새로운
결제 시스템,
'전자지갑'

개인정보 관리,
악성 앱 등
보안에 주의해야

경제이야기



2013년 8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6백만명을 넘어섰다. 이제는 전국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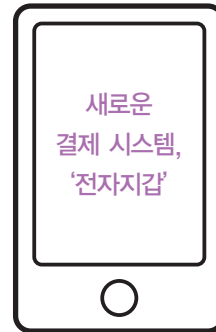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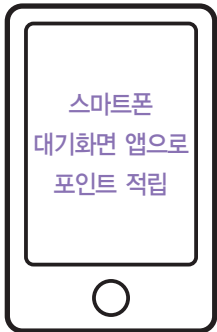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를 노린

각종 스미싱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편리함은 물론 알뜰한 소비 습관도 키울 수 있다.

인트를 적립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인트 적립 앱 중 가장 적립율이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까? 대부분의 포인트 적립 앱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스토어가 마련돼 있다. 이 곳에서 유명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밀리레스토랑, 영화관 티켓,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상품 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계좌로 직접 현금을 받을 수도 있다.



모바일 설문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2명은 5분에 한 번, 하루 평균 50번씩 스마트폰 대기화면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비밀번호나 패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잠금을 걸어놓고 사용하는데, 이를 노린 포인트 적립 앱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포인트 적립 앱은 대기화면에 광고를 띄우고 사용자들이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준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잠금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포인트가 쌓일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런 형식의 포인트 적립 앱을 설치하면 시간대별로 다양한 광고가 뜨는데, 광고별로 5~100원 가량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대기화면 앱의 포인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게임 및 신규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도 있으니 이용해보자. 일반적으로 1~2분이면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나 단순히 신규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100~200원 가량의 포인트를 쌓아주기 때문에 꽤 쓸쓸하다. 또 설문조사 앱의 경우에는 새로운 설문조사 진행시 알람 설정을 맞춰놓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문항이 많을수록 포인트를 많이 적립해준다. 보통 1~5 문항의 경우 100~300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단 몇 분의 참여로 1000원 가량의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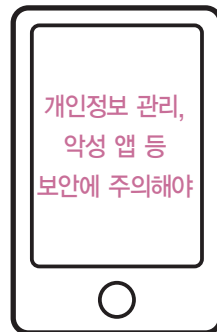
요즘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지갑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쿠폰 등을 담아두고 결제-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에는 지갑에 현금을 두둑히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보다 신용카드와 각종 멤버십 카드만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바로 '전자지갑'인 것.

최근 가입자수도 늘어가는 추세이고, 이동통신 및 금융회사는 저마다 전자지갑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이 전자지갑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기업입장에서도 고객의 소비성향에 따른 특성을 파



경제이야기

악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와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을 한 번에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함은 물론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스마트폰은 잘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보안카드 번호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하지 말아야 하고, 가짜 모바일뱅킹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청첩장 스미싱에 이어 할인쿠폰, 법원출석, 육설 등 스미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에 포함된 파일명이나 URL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 경우에는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의 번호로도 문자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미싱 범죄를 피하려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파일명이나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춰야 한다. 또 백신 프로

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업데이트와 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공인된 경로로만 앱을 설치하고,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실수로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와 통신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확인하고 신고한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 본인이 스미싱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명세서를 꼭 확인해보자.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원익 고건호
이태을

(주)원익큐앤씨 도현수
마라톤 동호회 '마사모'

신원종합개발(주) 현승훈
최정미

(주)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엄용택
한마음 봉사단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수정

(주)위닉스 안희태

(주)원익큐브 김태경
IT사업부

(주)씨엠에스랩 이희연
오상열
영업2팀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원익사보 2013년 가을호 원익사 통권 36호

발행인 조용래

발행일 2013년 10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사'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냄새나는 겨땀제거 미라클드라이 **미라드라이**

FDA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허가 완료

• 미라드라이 시술의 장점 •

- 비수술적인 치료로 일상생활 바로 복귀 가능
- 과도한 땀분비 및 냄새를 유발하는 겨드랑이 땀샘제거
-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결과 (평균 약 82% 땀 감소)
- 짧은 시술시간 (60분 이내)
- 높은 환자 만족도 (90% 이상)



miraDry
A lasting solution for
excessive underarm swea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원익빌딩 6, 7층
Tel : 031-8038-9045 www.skinlife.co.kr
미라드라이 상담문의 : 010-4745-2549